재료공학부 2021-11162 홍세준

평소에는 수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길에서 수어로 대화하는 사람을 가끔 보긴 했지만 그냥 청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대화하는 방법 정도로만 여겼고, 수어도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손동작으로 바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니 내가 수어를 너무 단순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어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어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국어였다.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보청기를 끼고 음성언어 교육을 받은 서희 씨의 사례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았다. 청각장애가 있다면 보청기를 쓰고 음성언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히 좋은 방향 아닌가 싶었고, 내가 부모였어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청인의 입장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인에게 수어가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라면,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을 뒤로 미뤄 두고 계속 남의 방식에 맞춰야 하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 일일 것 같았다.

반대로 농인과 청인 쌍둥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들의 언어로 수어를 선택한 사례도 인상적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농인인 아이가 청인인 아이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족을 보면서 꼭 한 사람이 다수의 방식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 함께 새 언어를 배우면 한 사람만 계속 노력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발상은 작은 차이 같지만 꽤 크게 다가왔다.

수어가 한국어를 손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새로웠다. 수어에는 고유한 문법이 있고 표정과 몸짓도 의미를 전달한다. 또 농인들 사이에 수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서, 농인을 단순히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부족한 상태로만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듯 농문화도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다. 영상 제목인 '나의 모국어, 수어'라는 말도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특별히 노력한 기억이 없는데, 농인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따라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언어를 접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당연하게 누려온 것을 누군가는 당연하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영상으로 농인의 입장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변화인 것 같다. 예전에는 농인을 보면 불편하겠다는 생각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사회가 한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만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농인이 청인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자막이나 수어 통역 같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수어를 단순한 손짓이나 보조 수단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